

질문은 무無에서 일어나 무無로 돌아간다

| 빠빠지 | 김병채 옮김 |

의식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흔한 패턴이 되었지만 진정으로 그 질문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 질문을 생각으로 하지 않고 느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모양은 어떤지? 형상은 어떠한고 느낌은 어떤 한지?(편집자 주).



저의 스승으로서 당신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하지 않는 어떤 것을 여기에서 해야 합니까?

당신이 온 목적에 주목하십시오. 먼저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관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우리가 나중에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입니다.

갈증이 나면 당신은 강으로 갈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저께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탐구하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제가 누구인지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당신이 바라보는 다른 모든 대상과 사람들의 참된 본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그저께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질문 전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생각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준 질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당신의 집인 참나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본 것을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빠빠지가 종이에 ‘누구’라는 글자를 써서 질문자에게 보여 주는 사이 잠시 대화가 중단되었다.)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종이 위의 한 단어를 봅시다.

이 간단한 단어가 당신의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어디에서든지. 그 ‘누구’란 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말입니다. 당신의 질문은 “누가 생각을 하는가?”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디에서 왔는지 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집중해서 이 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다시 그 ‘누구’란 자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일어나고 있음을 봅시다. 대상이 하나에서 또 다른 하나로 일어나는 것을 봅시다.

일어난다는 것은 술어에 해당합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가 생각을 합니까? 생각한다는 술어에서 방향을 바꾸어 ‘누구’라는 주어

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종착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근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누구’란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십시오. 그 자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이 ‘누구’란 자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그 형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떠한가요? 그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랜 침묵)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바로 무nothing에서, 텅 빈에서 일어나 다시 텅 빈으로 돌아가 사라집니다.

웁니다. 당신은 이 질문이 텅 빈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누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생각을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생각의 과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가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과정은 정지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질문이 사라졌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텅 빈만이 있습니다.”라고 당신이 말한 것입니다. 그 밖에 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텅 빈이고, 그냥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텅 빈입니다. 그것은 공간입니다. 텅 빈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현존, 공간 혹은 다른 무엇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나 생각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욕망에 의하여 항상 방해를 받습니다. 텅 빈은 그냥 생각이나 욕망의 부재 혹은 없음입니다. 어깨에 짐을 지고 있을 때는 쉬지 못합니다. 당신이 200파운드의 짐을 지고 있고 이 고통을 없애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어떤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을 괴롭히는 어떤 것을 벗어던짐으로써 당신의 본성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본성이란 당신이 이 무계의 짐을 지기 전에도 있던 본래의 상태입니다.

이 생각하는 과정, 이 짐은 우리가 늘 지니고 다니는 욕망입니다. 저는 이 원치 않는 짐을 버리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누가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당신은 생각하는 과정을 정지시키고는 순수한 근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당신 자신의 본성이며, 이것이 항상 당신인 것입니다. 마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 본래의 영원한 본성입니다. 거기에 머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곳을 벗어난다면, 당신은 현상계인 삼사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을 훨씬 더 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크고 대단한 경험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경험은 실제로는 매우 평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비어 있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텅 빔으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텅 빔으로부터 수백만의 행성들과 태양계를 구성하는 이 모든 현상계인 이 모든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수백만의 이 모든 행성들이 이 텅 빔

의 티끌로부터 일어나는 한 생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텅 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텅 빔의 상태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합니까? 생각은 텅 빔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들은 매우 매혹적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두렵게 합니다. 어떤 생각들은 아주 불쾌합니다. 저는 그 생각들에 매달려 그 생각들과 동일시하려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그 생각들이 되어 버립니다. 제가 자신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 전까지는 현존과 텅 빔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되, 이 모든 것이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한 편의 연극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한 극단이 연극을 공연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신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아파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역을 맡을 다른 배우들도 없었기에, 극단의 소유주가 그 역할을 하도록 투입되었습니다. 그 극단 내 고용인에 불과한 왕이 극단주인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신발을 가져오너라. 산책을 나가고 싶다.” 그 극단주는 순순히 복종을 하고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극단주라는 것을 잊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동안 내내 그는 자신이 극단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하의 역할을 맡아도 행복합니다.

자신이 참나라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산다면 당신의 모든 활동이 아주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텅 빔에 대한 앎을 잠깐이라도 보았다면, 이 모든 현상계, 모든 삼사라가 자신의 투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에 당신은 늘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을 수행하되 이 모든 것이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한 편의 연극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현상계는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잠을 잘 때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다른 종류의 꿈이 존재합니다.

저는 꿈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꿈꾸는 상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지요. 저는 지금 깊은 수면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리쉬계쉬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심리학자, 생리학자, 심지어 초월 심리학자들을 포함하여 25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깨어 있음과 꿈이라는 두 상태만 존재한다는 매우 독창적인 명제를 가지고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깨어 있음과 꿈, 이 둘 중의 하나에 있으며 잠과 같은 상태는 실제로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사람이 저에게 “그것이 우리가 서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의 뇌에 뇌파를 재는 기구를 부착했을 때 깊은 잠으로 보이는 기간조차도 꿈이 늘 진행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깨어 있음, 꿈꾸는 상태, 잠, 푸리야, 푸리야띠파와 같이 다섯 가지 상태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의 것은 무엇입니까?

푸리야띠파입니다. 깨어 있음, 꿈, 잠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이후에 네 번째 상태인 푸리야가 있습니다. 푸리야는 이전의 세 개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 너머에 푸리야띠

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네 번째의 너머’라는 것입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그들의 도구로 시험하기 위해서 스와미들을 찾으려 여러 아쉬람을 다녔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우주비행사 훈련과정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수면을 잘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의 수면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명상이나 요가가 그들의 수면 방식을 개선할지도 모른다는 이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시험의 대상이 될 스와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와미들이 명상하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여 명상 중에 뇌파의 변화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도하였고 결국에는 스와미 라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스와미 라마는 아쉬람에서 정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 있지는 않았으며, 이것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예의바르게 다가가서 그들의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거나 누워서 명상하는 동안 그의 뇌파를 검사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정원에 물을 주고 있는 동안에 당신의 줄들을 부착해도 됩니다. 저는 명상하기 위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머리에 줄을 부착하였는데 그 스와미가 말한 바와 같이 그가 일상적인 정원 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명을 받았으며, 심도 있는 실험을 하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당신이 알고서 그 바탕에 자리를 잡는다면, 수많은 활동이 진행되더라도 그 활동을 할 마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나가 이 모든 것을 돌

볼 것이고 당신은 늘 평화 속에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음, 꿈, 잠과 같은 세 가지 상태와 텅 빔의 바탕이 되는 네 번째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세 가지 상태는 바탕에 투사된 것입니다. 그 바탕은 잠이 오고 가고, 꿈이 오고 가고, 깨어 있음도 오고 가는 그 배경인 것입니다. 어떤 바탕, 즉 어떤 근본적인 토대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 토대, 그 현존, 그 공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외부의 일들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은 모든 것이 이 바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반묵파입니다. 지반묵파는 그들이 몸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 있는 동안에 완전한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텅 빔에 대한 자각은 잠시 동안 일어나지만, 죽은 친구에 대한 기억이 일어나 갑자기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에 집착하므로 텅 빔에 대한 자각을 잃습니다. 이런 종류의 텅 빔은 영속적이지 않고, 정신적인 활동의 변덕에 의존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원래의 공간, 그 텅 빔을 잠시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삼사라가 결코 끝나지 않으며,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극소수뿐인 첫 번째 클럽의 회원이라면, 드러나는 모든 현상이 자신의 참나에 나타난 겉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이 눈을 뜨게 되면 현상계는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오직 투사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잠잘 때는 어떤 현상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당신, 즉 당신의 참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은 당신이 잠을 자

는 동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어떤 것이 당신 자신의 참나입니다.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그 현존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고, 그 ‘당신’을 통하여 당신은 살아갑니다. ‘당신’에게 현존이 느껴지는 유일한 때는 현존에 대한 자각에 어떤 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장애가 있을 때는 현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장애가 없을 때는 현존을 느낄 수 없다.” 이 말은 매우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장애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이나 경험의 부족과 같은 이 모든 것은 개별성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통해 중재됩니다. 이 장애는 현존으로부터 일어나며,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통하여 현존을 느끼거나 현존의 없음을 자각합니다. 현존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중재자가 그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나’가 없을 때 어떤 것을 자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존은 제가 잠이 들 때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장애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의 본질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산띠, 즉 평화는 장애물이 생기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장애가 사라지면 산띠는 여전히 가득합니다. 당신의 본성이 산띠입니다. 경험하는 자가 있을 때도, 경험자가 없을 때도 그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끝) 

- 이 글은 《자유의 불꽃 - 빠빠지와의 샷상》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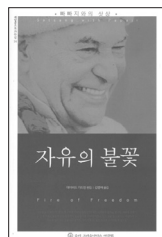
저자 | **빠빠지** | 라마나 마하리쉬의 제자로 현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적 인물 중 하나이다. 1970년에서 1990년 사이 인도와 해외를 널리 여행했는데, 그의 여행 대부분이 그를 보고 싶어 했던 헌신자들의 간청 때문이었다. 그는 센터나 아쉬람을 세우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했다. 대신에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작은 집단과 만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신체적인 문제로 혼자 여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인 1980년 후반, 렉나우에 정착했다. 처음에는 도시 중심에 있는 가족의 집에서 지내다가 1991년부터는 인디라 나가르 교외의 한 집에서 지냈다. 그가 매일 샷상을 하고 가끔 강가를 잠깐 방문하는 여행을 하면서 말년을 보낸 곳이 바로 거기였다. 1997년 9월에 세상을 떠났다.

역자 | **김병채** | 1989년 하리드와르에서 빠빠지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 창원의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에서 샷상을 하고 있다.

추천도서 **마하락트지** *Good Book*

자유의 불꽃 - 빠빠지와의 샷상

데이비드 가드먼 편집 | **김병채** 옮김 | 슈리크리슈나다스아쉬람 |
값 18,000원



깨달음으로 가는 길 14권. 빠빠지가 1991년 자신의 인디라 나가르 집에서 방문객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옮긴 것이다. 그 당시 약 10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매일 그를 만나러 왔다. 원본 오디오 테이프에는 날짜가 없지만 당시 참석했던 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샷상이 그해 7월과 8월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빠빠지는 주로 서양인들과 대화했기 때문에 힌두경전과 철학의 기술적 용어는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용어들은 실제로 이따금 나타나는데, 그 용어들이 괄호를 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번역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용어들의 의미는 이 책의 끝에 있는 용어해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